

보도시점 2025. 5. 28.(수) 16:00 배포 2025. 5. 28.(수) 14:00

# K-바이오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및 글로벌 협력 방안 논의

-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2025년 제1회 미래전략포럼 개최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5.28(수)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제1회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 < 제1회 미래전략포럼 개요 >

- ▶ **일시·장소:** '25.5.28.(수) 14:00~16:00, 서울 LW컨벤션센터
- ▶ **참석자:**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미래전략국장, 정책조정국장, 국가바이오위원회 바이오투자전략국장  
(민간)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국책 연구기관, 바이오 클러스터 및 업계 관계자 등
- ▶ **발제·토론:** (발제)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전략실장,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  
(토론)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前)원장, 안성환 지노믹트리 대표, 유진산 파맵신(PharmAbcine) 대표, 변정훈 넥스트게이트파트너스 대표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의 가능성과 도약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차세대 국가 핵심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가바이오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국가중장기전략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바이오클러스터 및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민간의 정책 수요간 접점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기반 신약과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 첨단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바이오산업은 경제안보의 중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초연구부터 사업화 지원, 규제 개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민관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민간의 창의성과 속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바이오산업은 견고한 성장 기반을 다져왔고,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등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높은 잠재력이 입증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경제에 바이오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바이오 분야가 새로운 경제발전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전략실장이 「한국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정책과제」를,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이 「한·미 바이오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였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바이오 분야 전문가 및 산업계 관계자 4인이 참여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 심화와 투자 경기 둔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특히, 첨단·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R&D·인프라·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바이오 투자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상장·회계 관련 규제 개선과 벤처 펀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제언들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의 발굴·육성·지원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미래전략포럼을 활용할 계획이다.

- 별첨 1)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 개회사
- 별첨 2)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모두발언
- 별첨 3) 미래전략포럼 개요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곽상현 (044-215-4910)
		담당자	사무관	김민중 (m4mj11@korea.kr)
		담당자	사무관	전찬익 (jky820@korea.kr)